

2018년 2월 10일, 한림읍 월림리 월림리노인복지회관, 송정희 조사.

제보자1: 변명림(남, 1932년생, 한림읍 월림리)

제보자2: 문일선(여, 1940년생, 한림읍 월림리)

- 줄거리: 옛날 어느 집안 시어머니가 시집 온 며느리에게 쌀 한 되를 주면서 죽기 전까지 살라고 했다. 며느리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집을 나가버리기 일쑤였다.

하루는 어떤 여자가 자청하여 그 집의 며느리로 들어갔다. 시어머니는 똑같이 쌀 한 되를 주면서 죽기 전까지 살라고 했다. 며느리는 그 쌀로 밥을 해 먹으니 남는 것이 없었다. 며느리는 시장에서 돼지고기를 파는 곳에서 돼지고기를 만지면서 얼마냐고 물고 또 물고 하다 집으로 돌아와 돼지고기 만졌던 손을 씻어 그 물로 국을 끓여 식구들을 먹였다. 시어머니가 오늘 국이 참 맛있다고 하니 시장 갔다 온 이야기를 했다. 그 이야기를 듣던 시아버지는 장독에 손을 씻었으면 오래 먹었을 거라며 절약정신이 없다고 며느리를 쫓아냈다.

**[제보자1]** 옛날에 어느 집안에 아들이 하나 잇는다. 장계를 보냈어. 겐디 시어멍. 어머니,

쓸 훈 되 주면서 메누리신디

“이걸로 죽기생전 살아.”

쓸 훈 되로 죽기생전 살아져게. 쓸 훈 되 가지고 죽기생전 살 수가 엊거든,  
아이고, 이거 메누리 죽기생전 살렌 허믄 나가불고, 나가불고.

“이 할마니는 나가 율로 데령 가 버릇 ?리청 살아사켜.”

저 에염 들어가는디

“나 이 집이 메누리 허쿠다.”

“어, 기여 고맙다. 착허다.”

쓸 훈 되 주멍

“쓸 훈 되로 죽기생전에 살라.”

쓸 훈 되 가지고 죽기생전을 살 수는 엊거든. 밥은 훈 때 헹 먹어보난, 메기고 시장통에 뎅겨 보니깐은 돛꿰기 푸는 디가 있거든.

“요건 얼메우꽈? 요건 얼메우꽈?”

허멍. 짚으멍 헤가는데 손에 뜯지름 불르고, 뜯지름을 흐쓸 얹어단. 그걸 씻어 올려 국을 끓여거든. 식구마다 다 불렁 맥연.

**[제보자2]** 집이 오랑 손 씻인 물에 국 끓여 맥연.

**[제보자1]** “오늘은 어떠난 국이 영 맛이 좋니?”

“건 뭔 말이꽈? 어머니 쓸 훈 되 주명 죽기생전에 살렌 허난. 쓸 훈 되는 밥 훈 끼 헹 먹어부난 메기고, 다시 뭉을 헹 먹어야 될 건디 먹어볼 건 엊고. 시장에 뎅기당 이만 저만 헹 뜯지름 얹어단 국을 끓여 훈 사발씩 안넷우다.”

허난. 시아방이 앗았단 허는 말이

“야. 이 이년도 조냥 못헐 년이라고 나가불라. 아. 그거 장독에나 물독에 씻어낫 이믄 오래오래 먹을 건디. 훈꺼번에 먹언. 이년도 조냥 못헐 년이라고 나가라.”

**[제보자2]** 장더레 씻어낫이믄 거 일년 내내 먹을 걸. (웃음)

- 핵심어: 쓸(쌀), 훈 되(한 되), 뜯지름(돼지기름), 조냥(절약), 시장, 장독, 국, 시아방(시아버지), 시어멍(시어머니), 메누리(며느리), 아들, 장게(장가)